

20-30대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 및 여드름 관리 방법 분석

이정희^{1,†} · 문소희²

¹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조교수

²광주여자대학교 미용과학과, 겸임교수

(2020년 10월 7일 접수: 2020년 10월 27일 수정: 2020년 10월 29일 채택)

Analysis of Acne Awareness and way to acne care of Chinese People on 20s and 30s with Acne Skin

Jung-Hee Lee^{1,†} · So-hee Moon²

¹Assistant Professor, Dep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Kwangju Women's University

²Associate Professor, Dep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Kwangju Women's University

(Received October 7, 2020; Revised October 27, 2020; Accepted October 29, 2020)

요 약 : 본 연구는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중국인 20-30대를 대상으로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을 비교 연구하고자 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560부 중 27부를 제외한 533부를 최종분석에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 차이 분석 결과 '관리인식' $t=3.380$, '악화요인 인식' $t=2.314$ 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여드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30대보다 20대가 여드름에 대한 인식 정도가 더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중국인의 연령에 따른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드름 관리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에 대한 차이 비교, 추후 여드름 피부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주제어 : 중국인, 20-30대, 여드름 인식, 여드름 발생인식, 여드름 악화인식, 여드름 관리인식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compare acne recognition and management methods for those in their 20s and 30s who live in China and have acne. A total of 60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and 533 copies were used for final analysis, excluding 27 of the 560 collected questionnaires.

[†]Corresponding author
(E-mail: jh4471@naver.com)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difference in perception of the cause of acne, management perception, and exacerbation factor of Chinese people according to age showed 'management perception' $t=3.380$, and deteriorating factor recognition' $t=2.314$, indicating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perception of acne according to age. It was found that the recognition degree of acne is higher in the 20s than in the 30s.

Through this study,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perceptions and management methods of acne according to the age of Chinese people, the changes in acne management perception and behavior according to the change of the times were identified, and the difference between Korean and Chinese perceptions of acne, and later acne skin It is believed that it can be provided as a basic data for finding an effective management method.

Keywords : Chinese, 20s and 30s, Acne awareness, Acne occurrence awareness, Acne worsening awareness, Acne care awareness

1. 서론

한류 열풍으로 인해 중국 소비자들은 희고 고운 피부를 선호하고 피부 관리에 관한 관심과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E. H. Lee, 2013). 스스로 좋은 외모를 갖추어야 사회에서 자신의 가치를 평가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20-30대가 새로운 소비계층의 하나로 등장하고(H. H. Kim, 2012), 생활의 환경에 더불어 삶의 질을 측정하는 잣대로 외모가 중요한 요인 중 하나가 되었다(H. Y. Kim, J. D. Kim, 2009). 여드름은 신체적 뿐만 아니라 심리적 그리고 사회적으로 삶의 질을 위축시킨다(Y. J. Kim, 2003). 여드름은 사춘기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20대가 되면 호르몬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어 대부분 사라지지만, 일부 여드름이 있는 대학생들은 고민과 스트레스로 피부 건강에 악순환을 초래하여 용모에 자신을 잃고,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생기게 되며, 대인관계와 일상생활에도 악영향을 미친다(M. R. Kim, 2006). 대부분의 여드름 환자는 그냥 내버려 두거나, 혹은 손으로 여드름을 악화시키거나, 잘못된 지식과 그릇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K. Lee, 2000). 중국 35개 병원 피부과에서 3,012건의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처음 실행한 설문조사에서 여드름 환자 3,012명 중 76.6%가 여드름에 대해 질병으로 생각했으나 35.2%만이 병원을 찾았으며, 기타에는 스스로의 피부압박, 연고나 화장품사용, 민간요법, 미용실 방문 등의 방법으로 관리를 하는 것 조사되었고, 중국 피부 의사 협회가 9개 도시(북경, 상해, 충

칭 등)의 피부과를 내원하는 6000명의 여드름 환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4.2%만이 병원을 방문하며 65.4%는 자기관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의 일반적인 사람들은 여드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여 여드름은 청소년기에만 생기는 것으로 시간이 지나면 사라진다고 생각하며, 여드름 관리에 대한 잘못된 지식과 관리 방법으로 이차적인 문제를 양상하고 있다(S. X. Gao, 2017). 여드름은 체계적인 치료와 관리가 필요한 질병이지만 전문적인 관리 및 치료 과정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다(N. Jin, 2014). 특히 20-30대 중국인의 피부관리에 있어서 가장 큰 고민거리인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방법을 분석하거나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 차이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30대 중국인의 연령에 따른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을 분석하고 한국의 선행연구와 비교 분석 함으로써, 중국인과 한국인의 여드름 인식과 관리방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여드름 개념

의학적인 측면에서 여드름은 주로 사춘기에 발생하는 모낭 피지선의 만성염증성 피부 질환이다(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1994). 여드름의 정확한 원인은 알려져 있지 않으나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모낭 각화, 피지 분비 증가, 피

지 내 *Propionibacterium acne*(p.acne)의 증식 및 염증 유발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 여드름의 원인은 크게 내적 요인과 외적 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내적 요인에는 가족력에 의한 유전적 요인(J. H. Hahm, M. J. Kang, 2000)인 뇌하수체를 자극해 부신피질 호르몬을 유리시켜 코르티솔을 분비하게 하여 화농성 여드름을 발생시키는 스트레스(L. H. Yang, 2002) 등이 있다. 외적인 요인에는 모자, 장신구 등의 계속된 국소 압력이나 마찰 또는 여드름을 손으로 짜거나 건드리는 빈도가 잦을수록 여드름 반흔이 증가하는 등 이차적인 여드름 악화를 가져오는 현상 등의 물리적 요인과 크림, 오일, 포마드 등 여드름 유발이 가능한 화장품의 사용이나 향수, 모발용 제품 등의 화학물질이 피부에 닿은 뒤 면포가 생겨 그 부위에 여드름을 유발하게 되는 화학적 요인이 있다(M. R. Kim, 2006). 그 외의 계절 및 기후, 자외선, 스테로이드성 항생제 및 약제 남용으로 인한 요인이 있다(E. H. Lee, 2005).

2.2. 여드름 인식

여드름이 있는 집단에 대한 지식과 태도, 치료 행동은 여드름의 원인, 유발 인자, 치료법 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H. O. Yang, Y. S. Na, S. H. Baek, 1999). 여드름에 대한 인식도에는 여드름발생, 여드름악화, 여드름 관리가 포함된다(S. X. Gao, 2017). 여드름 발생인식은 위생, 변비, 위장장애, 호르몬, 모공, 세균, 피지, 나이 등 여러 관계를 포함한다. 여드름 악화인식은 식생활, 호르몬, 음식, 유전, 스트레스, 화장품, 물리적 자극과의 관계를 포함한다. 여드름 관리인식은 세안, 여드름 추출, 치료, 흉터, 질환, 자외선과의 관계를 포함한다(N. Jin, 2014). 여드름 원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가진 경우, 중증의 증상으로 악화되거나 켈로이드, 영구적인 흉터 등의 흔적이 남을 가능성이 많아, 올바른 인식과 함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E. J. Lim, H. J. Kim, J. H. Ha, 2018).

2.3. 여드름 관리

2.3.1. 병원 피부과 관리

중국의 피부과에서는 여드름을 중·서양 의학을 융합하여 치료하고 있다.

여드름 치료 시 약물요법은 크게 먹는 약과 바

르는 약을 사용한다. 바르는 것으로는 살균작용과 항염작용이 함께 있는 각질 용해제를 사용한다. 각질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스펀지나 연마분이 함유된 크림으로 마사지하는 방법도 사용된다. 전문 화장품을 바르거나 그 밖에 기구를 사용하여 면포를 짜내거나 흡입해 내는 방법과(N. L. Kim, 2003) 필링요법 등이 있다. 그 외 자연요법과 비타민제의 섭취(C. L. Lee, 2004)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2.3.2. 전문 피부 관리실 관리

피부 관리실에서 여드름에 대한 관리는 클렌징 단계, 여드름 압출 단계, 진정 단계, 마무리 단계로 진행된다. 여드름 관리는 여드름 압출과 진정, 소독, 살균이 주된 단계로 각질과 피지 제거 후 림프배농과 진정관리를 한다. 구체적인 관리내용은 클렌징단계에서 여드름 전용 클렌저를 사용하여 피부의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여드름 압출 단계에서는 화농과 피지 응어리를 적절한 압력을 가해 추출하고 소독한다. 진정 단계에서는 팩 등을 이용하여 예민해진 피부를 진정시킨다. 마무리 단계에서는 여드름 관리 후 지친 피부에 유·수분 밸런스를 맞추어 피부가 빨리 회복 할 수 있게 도움을 주고 마지막으로 자외선 차단제를 도포하여 민감해진 피부를 자외선으로부터 보호한다(Y. Shuang, 2019).

그 밖에 물러로 피부를 자극하여 활성 성분이 피부 세포층에 효과적으로 침투할 수 있는 미세 침 방법과 붉은색 다이오드와 파란색 다이오드로 광과장대를 쏘아 피부를 비추는 적외광 조사 방법 그리고 살리실산, 아몬드산 등의 과일산을 도포하는 방법들도 함께 관리에 이용된다(Y. Shuang, 2019).

2.3.3. 한방 병원 관리

한방 병원에서는 '열'이 여드름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열이 많거나, 스트레스, 계절, 땀거나 자극적인 음식의 지속적 섭취, 체중 증가 등의 다양한 원인에 의해 인체 상부 쪽으로 열이 오르면 유분 분비가 많아지게 되면서 여드름, 지루성 피부염이 발생하며 소화기 기능이 떨어지고 장의 상태가 좋지 않은 경우, 염증을 더욱 악화시킨다.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여드름을 치료하는 것은 한방 병원의 기본적인 치료 방식으로 상체 쪽으로 오른 열을 내려주는 치료를 시행한다. 이미 올라온 여드름의 경우에는 여드름 압출 및 환부

에 염증을 가라앉히는 약침 시술과 여러 가지 피부 관리 방법을 병행하여 관리한다(T. T. Lin, 2020). 한방 병원의 기본적인 여드름을 치료 방식은 한약과 침 치료를 통해 치료하지만 중·서양 의학을 구분하지 않고 융합하여 치료하고 있다(S. S. Nam, 2006).

2.3.4. 자가 관리

세안은 자가 관리에서 많이 이용되는 방법으로 피지와 땀, 탈락하지 못한 피부 표면의 각질을 제거함으로써 모낭 내 피지 배출을 원활히 도와준다(B. J. Kim, 2013). 클렌징은 수용성 클렌저로 부드럽게 씻어 낸 후 스크럽 입자나 효소 등이 함유된 제품을 이용하여 각질 제거를 해야 한다. 자가 관리로 여드름을 짠 다음에는 수렴화장수를 이용하거나 팩을 이용하여 피부를 진정시킨다(H. Y. Baek, J. D. Kim, 2009). 구진, 결절, 낭포와 같이 화농이 심한 여드름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에게 부탁하는 것이 좋다(H. S. Choi, 2011). 과로, 수면 부족, 스트레스, 육체적 피로 등을 피하고(B. J. Kim, 2013). 자외선 차단제를 사용하여 피부보호와 색소침착을 예방한다. 보습제와 파운데이션은 오일프리(Oil-free)제품을 사용한다(J. D. Kim, J. E. Seol, 2015).

3.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및 기간

본 연구는 중국에 거주하며 여드름을 가지고 있는 20-30대를 대상으로 설정하여 시행하였다.

조사 기간은 2020년 07월 01일부터 07월 25일까지 총 25일간 실시하였으며 조사 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여 응답자가 설문 항목에 대해 직접 기입하는 자기기입(Self-administered) 방법을 사용하였다. 설문지는 총 600부 배포하여 회수된 설문지 560부 중 불성실하거나 모든 문항을 답변하지 않은 응답의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533부를 최종 표본으로 실증분석 하였다.

3.2. 자료 분석 및 측정 도구

본 연구의 설문에 사용된 문항은 총 36문항으로 선행연구를 참고·수정 보완하여 재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관한 항목 6문항, 여드름 인지 5문항, 여드름 발생 원인에 관한 항목 9문항, 여드름 관리 인식에 관한 항목 8문항,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 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본 연구의 수집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데이터 코딩(data coding)과 데이터 크리닝(data cleaning) 과정을 거쳐 SPSS 19.0 version을 이용하여 빈도 분석(Frequency analysis), 기술통계분석, 독립표본 t검정(t-test)을 실시하였다.

4. 결과 및 고찰

4.1. 일반적 특성

조사대상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성별은 '남성'이 163명(30.6%), '여성' 370명(69.4%)으로 여성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은 '20대'가 412명(77.3%), '30대' 121명(22.7%)으로 20대가 높게 나타났으며 직업은 '학생' 298명(55.9%), '직장인' 170명(31.9%), '자영업' 43명(8.1%), '기타' 22명(4.1%) 순으로 나타났다. 결혼 여부는 '미혼' 372명(69.8%), '기혼' 161명(30.2%)으로 나타났다. 월 소득은 '3,000위안 미만'이 280명(52.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4.2.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여드름 발생 나이는 '16-19세'가 263명(49.3%)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드름의 유형은 '지성 피부+여드름'이 291명(54.6%)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O. S. Jang, A. N. Pank, 2018)의 피부 유형별 여드름의 발생은 복합성과 지성피부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어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이 확인되었다. (H. Y. Baek, J. D. Kim, 2009)의 지성피부인 응답자는 다른 응답자보다 여드름이 항상 있다고 나타난 한국의 연구결과와 같은 맥락임이 확인되었다.

여드름 발생 부위는 '얼굴 부위'가 413명(77.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드름 관리 방법으로는 '자가 관리'가 264명(49.5%)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Y. J. Cho, D. H. Lee, E. J. Hwang, J. I. Yoon, D. H. Seo, 2006)의 여드름이 처음 발생한 부위가 남자, 여자 모두 얼굴부위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H. W. Shin, 2009)의 여드름이 처음 발생한 부위는 얼굴 단독이 98% 이상으로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 (M. O. Ham, 2002)의 연구에서는 여드름 환자가 자가진

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Division	N	%
Gender	Male	163	30.6
	Female	370	69.4
Age	20's	412	77.3
	30's	121	22.7
Job	Student	298	55.9
	Office workers	170	31.9
	Self-employment	43	8.1
	Etc	22	4.1
Marital status	Single	372	69.8
	Married	161	30.2
Monthly income	Less than 3,000 yuan	280	52.5
	Less than 3,000-6,000 yuan	130	24.4
	Less than 6,000-10,000 yuan	73	13.7
	Less than 10,000-20,000 yuan	41	7.7
	Less than 20,000-30,000 yuan	5	0.9
	30,000 yuan or more	4	0.8
Total		533	100.0

Table 2. Acne recognition of study subjects

	Division	N	%
Age of occurrence	12-15 years old	178	33.4
	16-19 years old	263	49.3
	20-25 years old	77	14.4
	26-29 years old	5	0.9
	After 30 years old	10	1.9
Acne types	Oily skin + acne	291	54.6
	Dry skin + acne	97	18.2
	Sensitive skin + acne	66	12.4
	Atopic dermatitis + acne	21	3.9
	Pigmented skin + acne	27	5.1
	Etc	31	5.8
Where acne occurs	Face area	413	77.5
	Chest area	29	5.4
	Back area	72	13.5
	Neck area	7	1.3
	Whole body	2	0.4
	Etc	10	1.9
How to acne care	Hospital Dermatology Treatment	113	21.2
	Professional skin care room care	52	9.8
	Oriental hospital treatment	36	6.8
	Self-care	264	49.5
	Use of acne cosmetics	68	12.8
One-time acne care Expenditure cost	Less than 200 yuan	254	47.7
	Less than 200-400 yuan	163	30.6
	Less than 400-600 yuan	73	13.7
	Less than 600-1000 yuan	30	5.6
	1000 yuan or more	13	2.4
Total		533	100

단에 의해 잘못된 여드름 치료를 시행한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결과의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관리하는 방법인 자가 관리 방법을 통해 오히려 여드름의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드름 관리 지출 비용으로 회당 '200위안 미만'이 254명(47.7%)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여드름은 자가 관리를 통해 여드름을 관리하고 있어 관리 지출 비용 또한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J. W. Choi, E. H. Lee, 2017)의 피부 관리 비용으로 5만원 이하가 가장 높게 나타나 본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D. H. Shin, S. H. Kim, 2019)의 여드름 관리 비용으로 1-2만원이 53.9%로 가장 높게 나타난 결과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3.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 원인 인식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 원인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여드름 발생 원인은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이 (M=4.31)로 가장 높았으며, '수면 8부족'이 (M=4.16), '스트레스' (M=4.13), '호르몬 불균형' (M=4.07), '과다한 피지량' (M=4.06), '비위생적인 손과의 접촉'이 (M=3.93), 월경주기 (M=3.78), 외부환경 (M=3.63), 유전 (M=3.23)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S. H. Min, 2003)의 인스턴트 식품에 대해 88.5%가 여드름의 발생이나 악화와 관련이 있다고 응답한 연구결과와 동일한 맥락임이 확인되었다.

4.4.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 인식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여드름 관리 인식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가 (M=3.92)로 가장 높았으며, '각질 정리가 필요하다.'가 (M=3.87), '운동이 필요하다.'가 (M=3.63), '뉘우면 흉터가 된다.'가 (M=3.58), '바르는 화장품이 중요하다.' (M=3.41) 순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E. J. Shin, H. S. Ahn, 2012)의 '여드름은 치료 및 관리가 필요하다.'에 대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난 ($p < .001$) 결과와 비슷한 맥락임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자주 씻으면 없어진다.' (M=2.83), '소주나 알코올을 바르면 소독된다.'가 (M=2.55), '햇빛에 피부를 노출하면 좋아진다.'가 (M=2.4)로 나타나 위생 관리는 여드름 개선에 별 효과가 없다고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K. J. Jang, H. Y. Song, 2003)의 "자주 씻으면 여드름이 없어진다", "여드름은 짜지 않으면 접이 된다"의 질문에 대한 지식정도가 50%이하로 나타난 한국의 선행연구와 유사한 지식내용을 중국인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5. 중국인의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

중국인의 여드름 악화 요인에 대한 인식을 알아보기 위해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은 '스트레스'가 (M=4.41)로 가장 높았으며, '수면 부족' (M=4.26), '자극 및 마찰'이 (M=4.13), '음주'가 (M=4.11), '흡연' (M=3.98), '화장' (M=3.85), '불규칙한 식사' (M=3.79), 호르몬의 변화 (M=3.74)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D. H. Seo, 2007)의 대부분의 환자에서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여드름을 악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 선행연구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나

Table 3. Recognition of the cause of acne (N=533)

Recognition of the cause of acne	M	SD
Fatty and instant food	4.31	1.378
Lack of sleep	4.16	1.506
Stress	4.13	1.504
Hormonal imbalance	4.07	1.463
Excessive sebum	4.06	1.504
Unsanitary hand contact	3.93	1.567
Menstrual cycle	3.78	1.509
External environment(yellow sand, ultraviolet rays)	3.63	1.642
Heredity	3.23	1.681

타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6. 중국인의 여드름의 발생원인, 관리인식, 악화 요인 인식 간의 상관관계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 간의 상호관련성을 살펴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은 요인들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생원인과 관리인식은 (r=.362**), 발생원인과 악화요인 인식은(r=.665**), 관리인식과 악화요인(r=.369**)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4.7.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차이

연령에 따라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여드름 발생 원인이라 생각되는 인식에서 ‘월경주기’ t=2.832, ‘호르몬 불균형’ t=2.183, ‘스트레스’ t=3.453,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t=2.623, ‘비위생적인 손과의 접촉’ t=2.545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여드름 발생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월경주기’는 20대 (M=3.89), 30대 (M=3.41), ‘호르몬 불균형’ 20대 (M=4.15), 30대 (M=3.79), ‘스트레스’ 20대 (M=4.27), 30대 (M=3.66),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20대

Table 4. Acne care awareness (N=533)

Acne care awareness	M	SD
Treatment and care are needed.	3.92	1.604
I need keratin cleanup.	3.87	1.539
I need exercise.	3.63	1.573
If left alone, it becomes a scar.	3.58	1.694
The cosmetics to be applied are important.	3.41	1.739
It disappears with frequent washing.	2.83	1.805
It is disinfected by applying soju or alcohol.	2.55	1.685
It gets better when you expose your skin to sunlight.	2.4	1.565

Table 5. Recognizing the factors that worsen acne (N=533)

Recognizing the factors that worsen acne	M	SD
Stress	4.41	1.275
Lack of sleep	4.26	1.376
Irritation and friction	4.13	1.453
Drinking	4.11	1.419
Smoking	3.98	1.475
Makeup	3.85	1.59
Irregular meals	3.79	1.583
Hormonal changes	3.74	1.508

Table 6. Correlation analysis

Acne awareness	M	SD	Causes	Care awareness	Deterioration factor
Causes	3.92	.917	1		
Care awareness	3.27	.813	.362**	1	
Deterioration factor	4.03	.917	.665**	.369**	1

*p<0.05, **p<0.01, ***p<0.001

Table 7. Recognition of causes of acne according to age (N=533)

Recognition of the cause of acne	M		SD		t	p
	20's (n=412)	30's (n=121)	20's (n=412)	30's (n=121)		
Menstrual cycle	3.89	3.41	1.442	1.672	2.832	.005**
Excessive sebum	4.11	3.89	1.469	1.611	1.311	.191
Hormonal imbalance	4.15	3.79	1.412	1.602	2.183	.030*
Stress	4.27	3.66	1.387	1.777	3.453	.001**
Hereditiy	3.21	3.30	1.670	1.726	-.510	.610
External environment (yellow sand, ultraviolet light)	3.67	3.48	1.632	1.674	1.123	.262
Lack of sleep	4.22	3.96	1.469	1.615	1.617	.108
Fatty and instant food	4.40	3.99	1.302	1.573	2.623	.009**
Unsanitary hand contact	4.03	3.60	1.518	1.686	2.545	.012*

*p<0.05, **p<0.01, ***p<0.001

Table 8. Acne care awareness according to age (N=533)

Acne management awareness	M		SD		t	p
	20's (n=412)	30's (n=121)	20's (n=412)	30's (n=121)		
Treatment and management are needed.	3.91	3.94	1.604	1.614	-.178	.859
It disappears with frequent washing.	2.83	2.85	1.800	1.829	-.139	.889
If left alone, it becomes a scar.	3.56	3.63	1.684	1.733	-.371	.711
The cosmetics to be applied are important.	3.38	3.48	1.737	1.752	-.533	.594
You need to clean up dead skin cells.	3.84	3.98	1.536	1.552	-.820	.413
It is disinfected by applying soju or alcohol.	2.57	2.45	1.672	1.732	.679	.498
It gets better when you expose your skin to sunlight.	2.36	2.54	1.564	1.565	-1.070	.285
I need exercise.	3.69	3.43	1.557	1.617	1.598	.111

*p<0.05, **p<0.01, ***p<0.001

(M=4.40), 30대 (M=3.99), '비위생적인 손과의 접촉'이 20대 (M=4.03), 30대 (M=3.60)으로 나타나 모두 30대보다 20대가 여드름 발생에 대한 인식이 통계적 유의수준 하에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나머지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8.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 인식 차이

연령에 따라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 인식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분석결과 여드름 관리 인식에서는 모든 문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9.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 차이는 Table 9과 같다. 분석 결과 '호르몬의 변화' t=2.056, '수면 부족' t=2.940으로 나타나 연령

에 따라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이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호르몬 변화’는 20대 (M=3.82), 30대 (M=3.50), ‘수면부족’ 20대 (M=4.37), 30대 (M=3.91)로 나타나 호르몬 변화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된다는 인식이 30대보다 20대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나머지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10.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 방법 차이

다음의 Table 10은 연령에 따라 중국인의 여드름 관리를 분석한 결과 여드름 관리 방법과 연령 간에는 분포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5).

‘1회당 관리 비용’의 카이제곱 값은 22.643 (.000)으로 나타났으며 ‘여드름 관리 방법’에서 카이제곱 값은 22.025(.000)로 나타났다.

‘여드름 관리 이유’의 카이제곱 값은 11.672 (.040)로 나타났다.

회당 관리비용은 20대는 200위안 미만(52.7%)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는 200-400위안 미만으로 나타나 경제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변화와 여유가 여드름 관리 비용에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드름 관리 방법’ 20대 자가 관리(52.7%)

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는 20대보다 피부과, 관리실, 한방병원을 통한 관리로 20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경제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변화와 여유가 여드름 관리 비용에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여드름 관리 이유’는 20대는 재발 우려가 있어서’(27.2%)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는 ‘전문 관리를 받으면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28.1%)가 가장 높게 나타나 30대로 가면서 더욱 전문성 있는 관리 방법을 모색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4.11.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 차이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 차이는 Table 11과 같다. 분석 결과 ‘관리인식’ t=3.380, ‘악화요인 인식’ t=2.314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여드름에 대한 인식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관리인식’은 20대 (M=3.99), 30대 (M=3.67), ‘악화요인 인식’ 20대 (M=4.08), 30대 (M=3.86)으로 나타나 여드름에 대한 인식이 30대보다 20대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관리인식’ 문항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9. Recognition of factors that worsen acne according to age (N=533)

Recognizing the factors that worsen acne	M		SD		t	p
	20's (N=412)	30's (N=121)	20's (N=412)	30's (N=121)		
Hormonal changes	3.82	3.50	1.468	1.618	2.056	.040*
Drinking	4.16	3.94	1.362	1.593	1.336	.183
Smoking	4.03	3.79	1.460	1.516	1.580	.115
Stress	4.45	4.31	1.257	1.334	1.068	.286
Makeup	3.87	3.76	1.564	1.678	.690	.491
Stimulation and friction	4.17	3.99	1.415	1.573	1.219	.224
Irregular meals	3.81	3.73	1.582	1.592	.480	.632
Lack of sleep	4.37	3.91	1.298	1.571	2.940	.004**

*p<0.05, **p<0.01, ***p<0.001

Table 10. How to manage acne according to age

Division		Age N(%)		N(%)	χ^2 (p)
		20's (N=412)	30's (N=121)		
One-time acne care Expenditure cost	Less than 200 yuan	217(52.7)	37(30.6)	254(47.7)	20.643*** (.000)
	Less than 200-400 yuan	119(28.9)	44(36.4)	163(30.6)	
	Less than 400-600 yuan	47(11.4)	26(21.5)	73(13.7)	
	Less than 600-1000 yuan	20(4.9)	10(8.3)	30(5.6)	
	1000 yuan or more	9(2.2)	4(3.3)	13(2.4)	
How to care acne	Hospital Dermatology Treatment	84(20.4)	29(24.0)	113(21.2)	22.025*** (.000)
	Professional skin care room care	33(8.0)	19(15.7)	52(9.8)	
	Oriental hospital treatment	20(4.9)	16(13.2)	36(6.8)	
	Self-care	217(52.7)	47(38.8)	264(49.5)	
	Use of acne cosmetics	58(14.1)	10(8.3)	68(12.8)	
Acne care reasons	Not applicable	58(14.1)	10(8.3)	68(12.8)	11.672* (.040)
	There is a possibility of recurrence	112(27.2)	26(21.5)	138(25.9)	
	By invitation	95(23.1)	22(18.2)	117(22.2)	
	I think it will work if I get professional management	72(17.5)	34(28.1)	106(19.9)	
	I had the experience of relapse due to neglect	59(14.3)	22(18.2)	81(15.2)	
	Etc	16(3.9)	7(5.8)	23(4.3)	
Total		412(100)	121(100)	533(100)	

*p<0.05, **p<0.01, ***p<0.001

Table 11. Differences in perception of causes of acne, care perception, and exacerbation factors of Chinese people according to age

Acne awareness	M		SD		t	p
	20's (N=412)	30's (N=121)	20's (N=412)	30's (N=121)		
Causes	3.99	3.67	.912	.896	3.380	.001**
Care awareness	3.27	3.29	.823	.783	-.211	.833
Deterioration factor	4.08	3.86	.918	.897	2.314	.021*

*p<0.05, **p<0.01, ***p<0.001

5.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연령에 따른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을 비교 연구에 관한 조사로 본 연구를 통해 연령에 따른 여드름 인식차이를 비

교 분석 함으로써 연령별 여드름 관리 마케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데 목적이 있다.

첫째, 연구대상자의 여드름 발생 부위는 '얼굴 부위'가 413명(77.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드름 관리 방법으로는 '자가 관리'가 264명

(49.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둘째, 여드름 발생 원인 인식 분석 결과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이 (M=4.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여드름 관리 인식 분석 결과 여드름 관리 인식은 '치료와 관리가 필요하다.'가 (M=3.9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 분석 결과 여드름 악화 요인 인식은 '스트레스'가 (M=4.4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셋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은 요인들 간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넷째, 연령에 따라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을 분석한 결과 여드름 발생원인이라 생각되는 인식에서 '월경주기' $t=2.832$, '호르몬 불균형' $t=2.183$, '스트레스' $t=3.453$, '기름진 음식과 인스턴트 음식' $t=2.623$, '비위생적인 손과의 접촉' $t=2.545$ 로 나타났다.

다섯째, 연령에 따른 여드름 악화 요인 분석 결과 '호르몬의 변화' $t=2.056$, '수면부족' $t=2.940$ 으로 나타나 호르몬 변화와 수면부족으로 인해 여드름이 악화된다는 인식이 30대 보다 20대가 통계적으로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연령에 따라 여드름 관리를 분석한 결과 '1회당 관리 비용'의 카이제곱 값은 22.643 (.000)으로 나타나 연령에 따른 차이를 나타냈으며, '여드름 관리 방법'은 20대 자가 관리(52.7%)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30대는 20대보다 피부과, 관리실, 한방병원을 통한 관리로 20대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여드름 관리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경제적인 사회활동으로 인한 수익의 변화와 여유가 여드름 관리 비용에도 반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곱째, 연령에 따른 중국인의 여드름 발생원인 인식, 관리인식, 악화요인 인식 차이 분석 결과 '관리인식' $t=3.380$, '악화요인 인식' $t=2.314$ 로 나타나 연령에 따라 여드름에 대한 인식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과는 (J. D. Kim, J. E. Seol, 2015)의 서구화된 식생활과 환경호르몬 등의 영향으로 사춘기의 연령이 낮아지면서 2차 성징의 빠른 발현과 함께 여드름 발생 연령도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M. K. Shin, N. I. Kim, 2008)의 여드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다고 나타난 연구결과

와 맥락을 같이 함을 알 수 있었다. 여드름 발생 연령이 낮아짐에 따라 여드름에 관심과 지식수준이 높아지고 여드름을 질병으로 간주하는 인식이 증가됨으로 인해 본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30대보다 20대의 낮은 연령층이 여드름 발생에 대한 인식이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의 선행연구와 동일한 맥락으로 중국인들의 여드름 인식은 한국인의 여드름 인식과 유사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중국인의 연령에 따른 여드름에 대한 인식과 관리 방법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시대의 변화에 따른 여드름 관리 인식과 행태의 변화를 파악하고 한국인과 중국인의 여드름 인식에 대한 차이 비교, 추후 여드름 피부의 효과적인 관리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연구 대상의 연령을 20대와 30대로 제한을 두어 연구하였으므로 추후 후속 연구를 통해 더욱 넓은 범위의 연령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이루어지기를 제언하는 바이다.

References

1. E. H. Lee, "A study on Chinese consumers interest in skin care and their preference for Korean cosmetics, Gacheon University", *Post-graduate School of Business studies, Department of Beauty*, pp. 5-9, (2013)
2. H. H. Kim, "A Study on Purchasing Patterns of Cosmetics in Female University Student in Shanghai", *China, Master's of Program Department of Cosmetology Graduate School of Engineering Konkuk University*, pp. 4-16, (2012)
3. H. Y. Kim, J. D. Kim, "A Study of Survey and Knowledge of Ac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5, No.3, pp. 910-920, (2005)
4. Y. J. Kim, "Cognition and management of acne in college students, Department of Public Health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Kosin University*, pp. 2, (2003)
5. M. R. Kim, "A Study on the Management Methods and Actual Conditions for

- Adolescent Acne”, *Graduate school of Dist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34–36, (2006)
6. K. Lee,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resence, attitude, and knowledge on acne and the quality of life of a womwn’s college students”,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 and Health, Chosun University*, p. 1, (2000)
 7. S. X. Gao, “Acne occurrence and management methods and awareness of women in Beijing, China”,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 5, (2017)
 8. N. Jin, “A Comparison of Acne Recognition and Actual Conditions in University Students in Shandong Area of Chin,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 2, (2014)
 9.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Dermatology, Seoul, Yeomungak*, pp. 383, (1994)
 10. J. H. Hahm, M. J. Kang, “Clinical trial of acne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ttern and perception of acne”, *Journal of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Vol.38, No.5, pp 589–599, (2000)
 11. L. H. Yang, “Relationship to stress, Korean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Vol.82, No.1, pp. 29–32, (2002)
 12. M. R. Kim, “A Study on the Management Methods and Actual Conditions for Adolescent Acne”, *Graduate school of Dis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36, (2006)
 13. E. H. Lee, “Research on the Awareness of and treatment of acne in adolescence and purchasing trend of acne cosmetics”, *Graduate school of Disance Learning Sookmyung Women’s University*, pp. 11, (2005)
 14. H. O. Yang, Y. S. Na, S. H. Baek, “Analysis of Students Perception on Acne”, *Korean Journal of Oriental Preventive Medicine*, Vol.3, No.2, pp. 129–150, (1999)
 15. S. X. Gao, “Acne occurrence and management methods and awareness of women in Beijing”, *China,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 5, (2017)
 16. S-H Lee, “Review of Acne, Dermatology for Dermatologists”, *Medimedia Korea*, Vol.1, No.1 pp. 10–13, (2003)
 17. J H Hahm, M J Kang, “Clinical trial of acne in adolescence and adulthoo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attern and perception of acne”, *Journal of Korean Dermatological Association*, Vol.38, No.5, pp. 589–599, (2000)
 18. Ilhoon Yang, “Relationship to stress”, *Korean Index of Medical Specialties*, Vol.82, No.1, pp. 29–32, (2002)
 19. E. J. Lim, H. J. Kim, J. H. Ha, “Effect of Female College Students’ Acne Recognition Degree on Their Quality of Life and Self-esteem”,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4, No.4, pp. 507–515, (2018)
 20. N. L. Kim, “Local treatment of acne, Dermatology for Dermatologists”, *Medimedia Korea*, Vol.1, No.1, pp.17, (2003)
 21. C. L. Lee, “Korean women’s skin knowledge and factors in acne management”, *Daejeon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Health and Sports*, pp. 8, (2004)
 22. Y. Shuang, “Relevance to Acne Classification and Acne Characteristics Recognized by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Management Attitude”,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 9, (2019)
 23. Y. Shuang, “Relevance to Acne Classification and Acne Characteristics Recognized by Chinese College Students and Management Attitude”, *Department of Beauty Science Graduate School of Kwangju Women’s University*, pp. 9, (2019)

24. S. S. Na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of acne skin care using oriental medicine", *Department of Cosmetic Beauty Graduate School of Social Culture Hanmam University*, pp. 31, (2006)
25. H. Y. Baek, J. D. Kim, "A study on the actual condition and recognition of acn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metology*, Vol.15, No.3, pp. 910-920, (2009)
26. H. S. Choi, "The secret recipe for acne", *Random House, Seoul*, pp. 91, (2011)
27. J. D. Kim, J. E. Seol, "A Study on the State of Acne Awareness and Care",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Knit Design*, Vol.13, No.2 pp. 1-9, (2015)
28. O. S. Jang, A. N. Pank, "Correlation between adolescent acne awareness and self-esteem". *Asian Journal of Beauty and Cosmetology*, Vol.16, No.2, pp. 151-163, (2018).
29. H. Y. Beak, J. D. Kim, "The effect of the occurrence and severity of acne on daily lif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Beauty Studies*, pp. 130-132, (2009).
30. Y. J. Cho, D. H. Lee, E. J. Hwang, J. I. Yoon, D. H. Seo, "An analysis study on patients who visited the acne clinic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Vol.44, No.7, pp. 798-804, (2006).
31. H. W. Shin, "Statistical study on the epidemiology, clinic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 of acne in middle school students",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pp. 1-120, (2009).
32. M. O. Ham, "A study on the satisfaction of acne treatment using dermabrasion, Doctoral dissertation", *Graduate School of Public Health, Yonsei University*. pp. 1-122, (2002).
33. J. W. Choi, E. H. Lee, "A study on women's skin health management awareness and practices. Korean Venture Entrepreneurship Society:" *Journal of the Conference*, pp. 171-174. (2017).
34. D. H. Shin, S. H. Kim, "Influence of Acne Skin on Teenager's Stress, Depression, and Self-esteem-Focusing on middle school students". *Journal of Convergence for Information Technology*, Vol.9, No.10, pp. 264-271. (2019).
35. S. H. Min, "A survey on dietary attitudes and perceptions related to acne among college students". *Korean Food and Culture Organization*, Vol.18, No.3, pp. 292-301, (2003).
36. E. J. Shin, H. S. Ahn, "Comparison of knowledge and lifestyle habits of acne in adult male acne patients and normal peopl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Skin Beauty*, Vol.10, No.2, pp. 361-369, (2012).
37. K. J. Jang, H. Y. Song, "A Study on the Knowledge of Acne and Health Promoting Behavior-with a university man". *Kor J Aesthet Cosmetol*, Vol. 1, No. 2. (2003).
38. D. H. Seo, "Fall Conference: Beneficiary Report; Epidemiological Survey Results of Acne Research Society: A multicenter joint study on the epidemiology of Korean acne patients". Program Book (formerly Abstract Collection), Vol. 59, No. 2, pp. 59-59, (2007).
39. J. D. Kim, J. E. Seol, "A study on the perception and management of acne". *Fashion and Knit*, Vol. 13, No. 2, pp. 1-9, (2015).
40. M. K. Shin, N. I. Kim, "Clinical features of acne in adulthood and elevation of serum IGF-1". *Korean Journal of Dermatology*, Vol. 46, No. 5, pp. 619-626, (2008)